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괴산 수해 농가 찾아 일손돕기 실시

✎ 이지효 기자 | ⓒ 승인 2025.07.22 15:5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한국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22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충북지역본부와 괴산증평지사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른 아침 7시부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인삼밭에서 무너져 흘러내린 흙을 정리하고, 쓰러진 농작물 및 농경지 복구, 퇴적물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7개 지사와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수위 설정 및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양·배수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한 결함여부 및 작동상태 등 사전 점검했다. 이에 앞서 16일부터 20일까지 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40개 양·배수장 가동 및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폭우로 일부 수리시설물 유실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최 본부장은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효 기자 jhlee@jbnews.com